

빈집 활용 귀농귀촌인 정보 제공

진안군,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시행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 대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내용 강의

무주군, 빠른 지역 정착 위해 건축주 동의 받아 매매·임대·전세 정보 제공

무주군이 빈집을 활용해 매매와 임대, 전세를 원하는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관내에 소재한 빈집을 일제 조사해 현황을 파악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 무주에 빠른 정착을 위한 취지다.



무주군 빈집 모습.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81일 동안 빈집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596동의 빈집을 발굴했다.

읍면별 빈집 실태를 보면 무주읍이 147동으로 가장 많고 적상면 116동, 부남면 96동, 실전면 90동, 안성면 86동, 무풍면 61동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군

청 민원봉사과장과 읍·면 빈집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과장은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무주 정착은 주거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며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을 활

용한 주거문제 해소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정착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에 나섰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빈집 활용은 군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과 함께 도시민들에게 무주정착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 매매와 임대, 전세를 원하는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빈집정비사업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1일 연장농공단지 관리소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박민규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나서 진안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 등 15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근로시간 판단 기준 △유연 근무제 도입요건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주요 내용 대해 Q&A방식과 사례를 통한 강의를 펼쳤다.

박민규 근로감독관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개정된 근로시간 기준 준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근무제도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연근무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적절한 사전검토가 필수"라며 "기업체는 각각의 업종에 따른 적합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를 선택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및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등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체들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애로를 최소화해 근무문화 개선 및 업무혁신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연구소-더 젓갈, 협력

한방자원 사업화 추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와 젓갈 전문제조업체인 (주)더 젓갈(대표 박병영)이 진안 한방자원의 사업화 추

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재)진안홍삼연구소와 (주)더 젓갈은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와 젓갈 전문제조업체인 (주)더 젓갈(대표 박병영)이 진안 한방자원의 사업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역할을 증진하고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여 상호 발전적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주)더 젓갈은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HACCP인증을 받아 현대화된 최신설비와 시설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젓갈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양념젓갈, 새우젓, 액젓, 기능성 젓갈 등의 특허인증과 해외인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공모과제 수주를 위해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진안 인·홍삼과 농특산물 관련 산업화 공동연구, 연구소 개발 기술이전 및 산업화, 진안 한방자원의 소재화 및 제품화에 대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영 연구소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안홍삼연구소는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전지원 봉축 연등탑 점등식 가져

무주군이 불기 2566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무주군 안전지원 봉축 연등탑 점등식을 가졌다. 21일 오후 무주군청 분수대 광장 앞에 설치된 연등탑에서 개최됐으며,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의 의장, 진일 스님, 성본 스님, 혜진 스님, 불자회원, 주민,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식은 무주불교대학 이규평 사무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의장의 축사, 원봉사 진일 스님의 점등선언, 석가모니불 정근 및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연등탑은 높이 9m, 둘레 24m로 1,100여개의 연등이 달렸으며 오는 5월 22

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진일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불기 2566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된다"면서 "지혜와 자비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부처님 오신 날을 군민과 함께 봉축 드린다"며 "석가탄신일을 앞둔 봉축 점등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마음속 연수에 불을 밝혀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변경(안) 공청회

진안군은 21일 산약초타운에서 군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32년까지 진안군 전 지역에 대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가뭄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연재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재

해위험지구를 10년 계획으로 정비했지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며 전체적인 계획 재수립을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진안군은 사전조사를 실시해 예비후보지 2,940개소 중 주민 수해도와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해 성수면 양화마을을 비롯해 위험지구

76개소를 선정할 바 있다.

군은 향후 10년간 2천6백억원을 투자해 해당 지구의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한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지역에 맞게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의탁 무주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황의탁(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예비후보가 21일 무주읍 소재 용천약국 2층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같은 당 백경태 무주연락소장,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비롯한 당직자들과 박찬주 군의장 및 의원, 지지자들이 참석해 세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황의탁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전라북도 도의원을 사퇴하면

서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무주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고 무주군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전환의 자리"라고 밝히면서 "무주군의 재도약을 책임질 일꾼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구한다"고 말했다.

황의탁 예비후보는 "무주 혁신 성장을 이룰 민주당 구원투수"라는 선거캠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번 개소식을 통해 흠뻑 뿔었던 민주당심을 하나로 모아 6.1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교육 사업 활동가 워크숍 개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교육사업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진안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진안군마을간사협의회, 진안군청 담당자 등 교육사업 실무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진안군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의 교육사업 규모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별 사업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진안군의 전체적인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노영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진안군역량강화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마을사업 단계별 역할 소개, 주민지원조직들의 협업 필요성을 시작으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사업을 공유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 귀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 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살고 싶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8대 장수군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장수군의의회가 지난 20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수군 치유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김용문 의장은 제8대 장수군의의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 동안 장수군의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 군민들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